

漢字借用表記의 변천에 대하여

裴 大 濶

＜目 次＞	
I. 들머리	3. 吏讀式表記
II. 漢字의 수입	4. 鄉札式表記
III. 漢字借用表記의 변천	5. 口訣式表記
1. 語彙表記	IV. 마무리
2. 擬國體	

I. 들 머 리

訓民正音が 창제되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어떤 종류의 固有文字가 있었다는 說¹⁾이 있다. 물론 漢字가 수입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도 어떤 固有文字가 사용되었다고 볼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傍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문자 사용에 대한 연구는 漢字로서 당시의 우리말을 표기했던 사실들을 고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漢字는 원래가 中國人의 생활감정을 표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言語體系가 다른 민족의 언어를 차용하여 자기 나라의 말을 표기하고자 할 때는 적지 않는 문제가 파생되었을 것임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 중

1) 權憲奎〈朝鮮語文經緯〉에 의하면 訓民正音 창제 이전의 오늘날 전하지 못한 고유 문자로서 ① 三皇內文, ② 神誌秘詞文, ③ 王文文, ④ 手寫文字, ⑤ 南海島地面巖石刻文, ⑥ 刻木字, ⑦ 高句麗文字, ⑧ 百濟文字, ⑨ 渤海文字, ⑩ 高麗文字가 있다고 하였으며, 金允經〈朝鮮文字及語學史〉은 ① 三皇內文 ② 神誌秘詞文, ③ 王文文, ④ 刻木文, ⑤ 高句麗文字, ⑥ 百濟文字, ⑦ 鄉札, ⑧ 渤海文字, ⑨ 高麗文字, 그리고 權相老〈朝鮮文學史〉는 ① 三皇內文, ② 秘詞文, ③ 天符經文, ④ 玄刻訣文, ⑤ 法首橋碑文, ⑥ 王文文, ⑦ 南海石刻文, ⑧ 刻木文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또한 李鐸〈國語學論攷〉은 耽羅文字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異質의인 두 언어 사이에 놓여 있는 차와 그 관계를 생각함에, 비로소 국어에 대한 인식이 새로와 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中國語는 孤立語로서 語法的 관계를 보이는 形式形態素가 존재하지 않지만은 국어는 添加語로서 실질적인 뜻을 內包하여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自立形態素와 이와 반대로 自立形態素에 의존하여 쓰이는 것으로,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形式形態素가 있어 이 두 요소가 서로 구성되어 語法上的 관계를 보이며, 의사전달이 확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그들이 연구해낸 表記體系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漢文이 그들의 사상감정을 표현함에 가능한 할지라도 그들의 言語體系에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되니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의 언어구조에 맞는 새문자에 대한 욕구가 있었겠으나, 인접한 중국문화가 너무나 찬란하였고, 또한 새문자를 창안한다는 것이 능력보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미 집한 漢字의 용법개량이 그래도 용이한 방법이였을 것이니, 같은 문화권의 日本도 역시 漢字를 빌어 萬葉假名體系를 세운 것으로 미루어 이해가 간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漢字借用表記의 변천 과정에서 국어의식의 혼적을 살피고, 한자 차용표기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살피고자 한다.

Ⅱ. 漢字의 수입

고대 한국인이 언제 부터 문자생활을 영위하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고유문자설이 있긴 하지만, 옛 문헌의 여기저기에 끼어있는 微微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현재로서는 짐작에 그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 漢字의 수입이 문자생활에 접한 시초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韓國인이 漢字를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 사용하였는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길이 없다. 다만 中國과는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고 있었던 관계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호 교섭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니, 여기에서 漢字가 유입되지 않았나 생각될 뿐이다. 즉 사적으로 불확실한 箕子朝鮮은 재치우고라도 뒤이어 이땅에 燕人 衛滿이 衛氏朝鮮(B. C. 194)을 세웠으며, 漢武帝가 衛氏朝鮮을 치고 그 자리에 樂浪, 眞

審 玄菟, 臨屯의 四郡을 설치(B. C. 108)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고대 韓民族이 漢字漢文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前代殷・周의 찬란한 문화와 漢民族과의 접촉²⁾은 漢字와의 관계를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漢字와의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격적인 文字의 받아 들임과 이의 보급은 아무래도 三國의 건국 이후 부터라고 하겠으니, 高句麗에서는 17代 小獸林王2년(372)에 奏의 승 順道가 들어오면서 佛經을 가져오는가, 하면 太學을 세워 子弟를 교육³⁾하였으며, 3년(373)에는 律令을 公布⁴⁾하였으니, 이는 인류문화 발전상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⁵⁾이 三國 중에서 高句麗가 中國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百濟도 역시 貊族의 일파가 南下하여 세운 나라이니, 高句麗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漢字漢文사용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12代 近肖古王30년(375)에 高興으로 하여금 書記를 편찬⁶⁾케 하였으며, 14代 枕流王 10년(384)에는 晉으로부터 中 摩羅難陀⁷⁾가 들어 왔다.

그리고, 高句麗 10代 長壽王 2년(414)에 세운 滿洲 韓安縣 通溝에 있는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的 碑文에 朱蒙의 건국설화에 이어 대왕의 덕을 논함에 있어, 中國古典의 書經에서 文句를 인용하고, 그 다음에 大征服事業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漢字漢文을 수입하여 익힌 능력을 말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겠다.

新羅 건국초기는 지리적 환경이 高句麗, 百濟와는 다른 관계로 中國과의 접촉이 늦어지고, 문화적으로도 다소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⁸⁾ 어쨌든

2) 遺孤公聘於馬韓<三國史記 新羅本記第一始祖赫居世居西干38年條> 立王子解憂爲太子 遣使入漢朝貢<三國史記 高句麗本記第二3代大武神王 15年條>

3) 奏王符堅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經文…立太學 教育子弟<三國史記高句麗本記 第六 17代 小獸林王 2年條>

4) 始頒律令<三國史記 高句麗本記第六 17代 小獸林王 3年條>

5) 虛道揚은 「韓國文化의 地理的 背景」<韓國文化史大系 I, 高대民族文化研究所, 1979년 重版, p. 18>에서 人種이나 民族이 主體가 되어 文化를 創造하는 데 있어서 自然環境의 影響을 볼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 社會的 環境(人文環境・歷史的 要素)의 影響을看過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6)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三國史記 百濟本記第二 12代近肖古王30年條>

7) 胡僧摩羅難陀自晉至王迎致宮內 禮敬爲佛法始於此<三國史記百濟本記第二 14代 枕流王 10年條>

8) <深書>(姚思廉編纂貞觀 3年(629)) 新羅傳에 의하면 新羅는 작아서 스스로 사신

新羅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中國과의 접촉 이전에 먼저 百濟나 高句麗와의 교섭이 자연스런 순서일 것이다. 그러므로 百濟와의 교섭 이후 약 100년이 경과한 후 비로서 高句麗와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다시 100여년이 넘어서 17代 奈勿尼師今 26년(381)에 中國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⁹⁾

그뒤 新羅는 보다 적극적으로 中國文化의 수입에 힘써 22代 智證麻立干 4년(503)에는 中國과 같이 王으로 부르도록¹⁰⁾ 하였으며, 23代 法興王 7년(520)에는 律令을 반포하고, 같은 왕 15년(528)에는 佛敎를 공인하였고, 24代 眞興王 6년(545) 大阿湊 居柒夫 등에 명하여 廣集文士하여 國史를 修撰하게 하였으며, 같은 王 16년(555) 때는 巡幸北漢山하여 세운 眞興王封疆碑文등은 당시 新羅사람의 漢字漢文에 대한 이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은 바가 있다 하겠다. 또한 같은 王 26년(565)에는 佛經 1,700여권이 들어오니¹¹⁾, 漢字漢文이 대단할 정도로 보급 일반화되어 마침내 35代 景德王 때는 배달민족의 고유말로 불려오던 地名을 전부 漢字로 개정하기에 이르러 漢字漢文의 사용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Ⅲ. 漢字借用表記의 변천

이렇게 하여 일단 수입된 漢字漢文은 수입과 동시 혹은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면서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서서히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漢字漢文이 수입되었다 해도 당장 이를 이용하여 자국어를 표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을 보내지 못하고, 法興王 8年(521)에 처음으로 百濟 사신을 따라 中國에 토산물을 바쳤으며…… 글자가 없어서 나무에 새겨 신료를 만들었으며, 언어는 百濟사람을 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9) 〈三國史記〉에 의하면 婆娑尼師今 26年(105)條에 「百濟遣使講和」라 하였고, 祇摩尼師今 2年(113)條에는 「百濟遣使來聘」이라 하였으며, 同 14年(125)條에는 「王移書百濟請敎 百濟遣五將軍助之」라 하여 친밀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으며, 沾解尼師今 2年(248)條에는 「遣使高句麗結和」라 하여, 百濟보다 高句麗와의 교섭이 100여년이 늦어지고, 中國과의 접촉은 奈勿尼師今 26年(381)條에 「遣使貢方物」이라 하였으니 地理의인 條件이 문화교섭에 당시로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0) 自我始祖立國 至今二十二世 但稱方言 末正尊號 今羣臣一意 謹上號新羅國王 王從之〈三國史記新羅本記第四 22代 智證麻立干 4年條〉

11) 陳遣使劉思與僧明觀來聘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三國史記 新羅本記第四 23代 眞興王 26年條〉

말만 있고 이를 표기할 적절한 문자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 새로운 문자와 접하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크게 다른 양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하나는 수입된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현상과 다른 하나는 이 새로운 문자를 활용하여, 자국어에 표기해 보려는 노력이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가 그것이다. 문자차용에 있어 전자보다 후자가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진대 漢字를 가지고 국어를 표기하는 데는 몇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언어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언어구조상의 차이가 있고 둘째는 음운체계상의 불일치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국어에 대한 의식이 싹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漢字가 쉽게 차용되고 이용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漢字의 본질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서 구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즉 「漢字가 本有한 形態, 概念, 字音의 세 가지 要素가 結合된 複合體라는 점이다. 즉 漢字는 가장 代表的인 表語文字의 하나이다. 表語文字는 처음부터 表音의 機構로서 成立된 것이 아니라 繪圖→繪畫文字→象形文字의 여러 단계를 거쳐, 社會慣習化함으로서 定着化하였고 그것이 言語音과 結合하게 된 것은 象形文字의 단계에 들어서의 일이다. 따라서 表語文字는 言語音과는 關係없이 단순한 概念(具體의 事象이거나, 抽象의 事象이거나를 막론하고)의 象徵化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表音性보다 表語性이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表記의 機構가 言語記號인 Signifiant와 結合함으로서 비로써 言語를 表記하는 媒介的 手段으로써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다.¹²⁾

따라서 漢字를 차용문자로서 받아드리는 쪽에서는 위 세가지의 성격을 분리시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에서 얼마든지 이끌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漢字는 비록 그 출발이 象形과 指事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언어에도 존재하는 音相만을 취해야하는 擬聲語 따위의 표기를 위해서는 부득이 假借의 방법이 이용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겠다.¹³⁾ 그리고 이러한 假借는 역시 漢字가 지니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기도 했다.

12) 兪昌均,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I (啓明大學校出版部, 1980. p. 57)

13) 이는 세계문자사상 공통된 현상으로 表音字(Phonogram)는 表意字(ideogram)에서 유래한 것으로 서양의 alphabet의 기원이 애급의 象形文字에서 나왔음에서도 이를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語彙表記

차용의 첫 단계는 어휘(固有名詞)의 표기 부터라고 하겠다. 고유명사를 그 음상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은 일찍 中國에서 먼저 비롯되었으니, 漢字六書(象形, 指事, 會意, 形聲, 轉注, 假借)의 기반위에 漢字가 어떤 형식으로든 표기해야 했던 최초의 외국어는 아마도 佛經의 원어가 되는 梵語가 아니었던가 싶다.

梵語로된 佛經을 번역할 때에 그 梵語의 음상대로 표기해야 했던 많은 固有名詞, 또는 번역이 불가능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없는 語彙들은 불가불 漢字의 假借法이 이용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¹⁴⁾

그리하여 「佛經上의 불번역어 표기의 전통은 漢字文化가 韓半島에 傳來되었을때 佛經과 함께 同時에 傳來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⁵⁾라고 하였으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人名, 地名, 官職名, 國名等과 같은 固有名詞를 역시 音相 그대로 表記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 경우 음운체제와 음절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한자음과 국어음의 간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必然的으로 表記에 나아가기 以前에 兩者의 構造的 差異를 明確하게 認識해야하는 것이다. 漢字는 表記文字이며 그 構造는 音節的이다.

따라서 우리의 固有語를 漢字로 表記하자면 먼저 固有語를 音節로 分析할 줄 아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分析된 音節形態에 가장 가까운 漢字를 거기에 對比시켜야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음성형태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漢字의 表音性を 이용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音借와 訓借¹⁷⁾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있으

14) 佛經이 中國에 처음 流入되어 번역되던 시기는 2-3C(後漢末 즉 三國初)이니 梵語의 Amitabhah> 阿彌陀, Bodhisattvah> 菩提薩埵, 菩薩, Bhiksuh> 比丘등과 國名의 경우 France> 法蘭西, America> 亞米利加식으로 音借한 것과 뿐만 아니라 梵語의 naraka를 地獄으로 表記한 것은 義借이며, Ice-Cream를 冰淇淋이라 表記하는 것은 義借과 音借의 混用이고, 때에 따라서는 音·義 양쪽이 동시에 작용된 表記도 있으니, 英語의 Index를 引得이라 함이 그것이니, 이는 漢字로 外國語를 표기함에 있어 漢字의 表意性を 살린 것이라 하겠다.

15) 南豐鉉·沈在箕,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東洋學第六輯,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1976. p.3)

16) 諭昌均, op. cit., p.60

17) 漢字의 表音性的인 면을 音이라 하고, 字義를 訓이라고 할때 中國의 音과 國語 音사이에는 音韻의 構造에 차이가 있으니 자연 國語의 音韻體系에 맞추도록 借用될

니 대체로 固有名詞의 표기는 ① 音借만의 표기, ② 訓借만의 표기, ③ 音訓借混用の 표기등으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차용표기는 상당할 정도로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 高句麗, 百濟 新羅의 인명에 차용된 漢字를 정리해 보면¹⁸⁾ (③은 三國에 공통으로 쓰인 字이며 ②는 二國에만 쓰인 字다.)

- /v/: 阿³, 鳥³, 干³, 優³, 友³, 偏³, 伊³
 /b/·/k/: 加³, 居³, 巨³, 高³, 古³, 仇³, 奇³
 /n/: 耶³, 奴³
 /t/: 多³, 刀³, 都³, 豆³, 頭³, 智³, 知³
 /r/: 羅³, 老³, 婁³, 留³, 利³, 理³
 /m/: 摩³, 牟³, 武³, 彌³
 /p/: 夫³, 比³, 毗³
 /s/: 沙³, 西³, 素³, 召³, 須³, 首³
 /t/: 助³, 祖³, 支³
 /h/: 解³

이와 같은 표기는 「음이나 訓이 韓國語的인 形態로 土着化한 다음에 可能한 것이다. 만약 韓國語的인 음이나 訓으로 土着化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發音할 것인가가 問題가 되고 사람에 따라 各各 다른 形態로 實現하게 된다면 그 表記는 一般性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¹⁹⁾ 이 같은 한국어적인 한자음은 음운의 차이로 인하여 漢字의 수입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략 된다.

왜냐하면 新羅 35代 景德王(742—764)에 있었던 漢字식 지명 변경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니 말하자면 지명변경은 한국한자음의 고정화를 전제²⁰⁾로 하는 것으로 이 때는 벌써 漢字음이 국어의 음운체계에 대응함이 그의 완전해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이니 이것을 音聲的 代用이라 할때 韓國漢字音化를 의미하며, 訓은 漢字의 基本的意味에 對應하는 韓國語가 適合함으로써 정전것이라 한다.

18) 崔範勲, 「漢字借用表記方式의 段階의 發展에 대하여」(論文集第七輯, 淸州女師大, 1978, p. 136)

19) 龔昌均, op. cit., p. 62

20)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論文集 第2輯, 서울大, 1955, p. 62)에서 「적어도 景德王時代以前에 表記法體系의 存在를 疑心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擬國體

어휘의 차용표기는 다음 단계인 문장표기로 넘어 나감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다. 언어구조의 차이에서 오는 국어에 대한 인식으로 문장을 이룩함에 있어 자국어의 언어구조에 맞도록 시도함 역시 순리라 하겠으니, 즉 擬國體²¹⁾(一名 誓記體)문장으로 된 보기는 1940년 慶州郡 貝谷面 金丈里敍寺址에서 발견된 소위 壬申誓記石에서 볼 수 있으니²²⁾ 5行 74字로 된 본문은

壬申年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今自
三年以後 忠道執待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 大亂世 可容
行誓之 又別先辛未年 七月廿二日 大誓
詩尙書禮 傳倫得誓三年

우리는 위 보기에서 다음 세가지를 엿볼 수 있다.

첫째는 漢字를 가지고 擬國體로 표기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문구성법이 漢文식이 아니고 한국어의 어순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단지 본문에서 보이는 壬申年이 정확히 어느 해를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²³⁾ 어쨌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詩, 尙書, 禮, 傳을 읽을 정도이면 설사 그것이 맹세에서 끝이 났다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한문에 대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 漢文에 미숙한 관계로 이렇게 썼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²⁴⁾

이런 식의 문제로는 新羅 33代 聖德王 19년(720)에 된 慶州 甘山寺阿彌陀

21) 6세기 중기의 것으로 믿어지는 이른바 誓記石에서 보는 문장으로 흔히들 誓記體라고 하나, 이와같은 형식의 문장이 또 다른 금석에서나 혹은 다른 遺物에서 보인다면 이때는 또 무엇이라 부를 것인지 매우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國語의 인 文章構成으로 되었으니, 擬國體라 하는 것이 후일 다른 자료가 발견된다 해도 두루 통용될 수 있는 명칭일 것같아 擬國體라는 用語를 쓰에 뜻을 같이 한다.

22) 李丙燾, 「壬申誓記石에 對하여」(論文集第五輯, 서울大, 1957, p. 2)

23) Ibid., p. 6에서 「誓記의 辛未・壬申兩年을 新羅興隆期の 어떤 해로 보아 眞興王 12. 13년(551—552)의 그것이나, 혹은 眞平王 33. 34년(611—612)의 그것에 해당할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4) Ibid., p. 2에서 「漢文의 作法이 우리말과 같은 語順으로 되어 있다는것 뿐이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마치 漢文에 미숙한 사람이 우리말식으로 漢文을 엮은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아래에 말할 바와 같이 그 書體로 보든지, 또 詩書 등의 儒教經傳을 학습할 정도의 사람이었으므로 보아 결코 그렇게 漢文에 미숙한 자의 行爲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如來造像記의 末尾에 있는

「亡考仁章一古渡年四七古人成之東海欣交邊散也後代追愛人者此善助在哉」

와 같은 문체도 역시 擬國體 문장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蔚州川前里書石, 南山新城碑, 戊戌鳴作碑文등도 같은 類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앞서 보기와 같이 壬申誓記石에 있는 擬國體 문장이 너무나 정연하고 일관된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 같이 漢字를 차용한 형편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池邊大宮治天下天皇 大御身勞賜時 歲次丙午年 召於大王天皇與太子 而誓願賜我大御病 太平欲坐 故將造藥師像作仕奉詔 然當時崩賜造不堪者 小治因大宮治天下 大三天 皇及東宮聖王大命受賜 而歲治丁卯仕奉」〔法隆寺金堂 藥師像光背銘〕

이것은 完全한 日本語順이 아니라 가령 「治天下, 召於大王, 故將造寺, 奉詔, 不堪者」등 漢文의 틀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大御身勞賜時, 而誓願賜, 我大御病太平欲坐…」와 같이 日本語의 造語法이 바탕이 되기도 하고 「藥師像作仕奉, 崩賜, 大命受賜, 丁卯仕奉」와 같은 경우는 語의 排列을 日本語式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여러가지 方式이 雜多하게 混雜하고 있다. 아마 上野國山名村碑의 整然한 形式으로 넘어가기 위한 過渡期的인 것으로 보인다.

上野國山名村碑文을 보면

「辛巳歲集月三日記佐野三家定賜健守命孫黑賣刀自此新川臣兒斯多彌尼孫大兒臣娶生兒長利僧母爲記定文也放光寺僧」

漢文의 語順을 無視하고 日本語의 順序에 따르고 있다.²⁵⁾

藥師像光背銘과 같은 것은 漢字를 이용해서 자국어틀 표기하고자 하는 하나의 몸부림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이른바 壬申誓記石의 碑文은 여기에 비하여 너무도 정연하고 일관된 표기법을 가지고 있다. 집작컨대,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지금 전하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틀림없이 처음에는 저들과 같이 혼미한 단계를 밟았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세째는 「叮嚀行誓之」의 之字의 용법이 漢文式이 아니고 뒤에 밝힐 吏讀式의 표기임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高句麗 25代 平原王 8년(556)에

25) 俞昌均, op. cit., p. 65~6

된 것으로 짐작되는 平壤 高句麗城壁石刻文의 「西北行涉之」의 之도 역시 같은 표기법이라 하겠다.

이것은 결국 擬國體의 발생이 후기 吏讀文을 발달케 하는 전단계적 과정을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漢字借用表記의 변천에 있어 擬國體表記의 3단계를 과소 평가하여 아예 鄉札式 표기에 집어 넣어어버리거나, 혹은 漢字借用表記法의 발달선상에 놓이는 문제의 일종이라하여 가볍게 빌어 부치거나, 심한 경우 漢文의 문장구조가 너무 어려우므로 한국인의 曉解를 위한 필요에서 발생한 문장법이라고 까지 하지도 말한 바와 같이 이는 남의 언어구조에 비하여 자국어의 언어구조가 다르다는 언어인식에서 오는 문자차용의 초기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南鎔²⁶⁾은 「吏讀文과 誓記體表記와의 差異는 그 限界를 짓기도 어렵고 그 時間的인 先後關係를 따지기도 어렵다. 誓記體表記에 吏讀字가 들어간 것이 吏讀文이라면 현존 最古의 記錄들에 나오는 ‘中’이나 ‘之’로 보아 어느 時代, 어떠한 文體부터는 吏讀字로 보고 그 이전의 것은 吏讀字가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였지만 이는 언어가 문화적인 산물이고 보면 별 문제가 안되리라 보며, 擬國體 표기법에 대한 의의를 국어의식이라는 점에서 좀 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吏讀式表記

擬國體 문장은 漢字의 義만 이해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擬國體 문장에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다. 바록 어순은 우리말 식으로 늘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형식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상태의 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우리말은 自立形態素의 실질적 개념이나 어순만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形式形態素도 직접적으로 구조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구문상에 이들 요소들이 충분히 실현되어야만 완전한 문구성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의 독특한 성격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형식적 요소를 첨가시켰으니 이것이 이른바 吏讀다.

즉

「丙戌十二月 中漢城下後部小元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平壤高句麗城壁石刻)

26) 南鎔鉉, 「漢字借用表記體의 發達」(國語學論文選 7, 民衛書館, 1977, p. 53-4)

「己丑年○月二十一日自此下向東十二里物省小兒俳須百頭○節矣(平壤高句麗城壁石刻)」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娣姊妹三人業以成在之娣者零妙寺言寂法師在娣妹者昭文皇太后君妳在娣妹者敬信太王妳在也」(開寧葛頂寺石塔記元聖王代)

「辛亥年二月二十六日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崩破者罪教事爲開教令誓事之(慶州南山新城碑)」

등이 있으니 위 보기에서 𡵓 字가 吏讀로 불리는 요소다. 위 文에서 𡵓요소를 제거하면 곧 擬國體와 같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大明律直解에서도 마찬가지로

〈漢 文〉

凡妻 無應出及義絕之狀而 出之者杖八十雖犯七出 有三不去而 出之者減二等還完娶

〈吏讀式表記〉

凡妻亦 可黜可絕之事 無去乙 黜送 爲去乙良 杖八十齊 必于 七出乙 犯爲去乃 三不出 有去乙 黜送 爲去乙良 減二等遣 婦女還本夫齊

〈擬國體〉

凡妻 可黜可絕之事 黜送 杖八十 七出犯 三不出 黜送 減二等 婦女還本夫

그러므로 擬國體에 二次的으로 형식적 요소를 보완하는 방법이 일찍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文體의 一種을 吏讀式 表記라 한다.

이와 같이 擬國體에 문법요소를 첨가한 것을 흔히 吏讀라 하지만 사실상의 명칭은 여러가지로 쓰이고 있었다.

다음에 문헌에 보이는 명칭을 들어 보면

• 吏 書

「弘儒薛條製吏書」李承休의 帝王韻記卷下(忠烈王 13년 1287)

• 吏 道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大明律直解跋(太祖 4년 1395)

• 吏 讀

「新羅薛聰吏讀…乃用吏讀 用吏讀者…因吏讀而知文字者…而況吏讀」崔萬理의 謚文反對上疏(世宗 26년 144)

「昔新羅薛聰始作吏讀」鄭麟趾의 訓民正音解例(世宗 28년 1446)

「以薛聰所製吏讀」魚叔權의 裨官雜記卷四(明宗)

「以革羅覽吏讀」黃胤錫의 閑齋庫遺稿卷二五(英祖)

「世傳我東吏讀」李義鳳의 古今釋林(正祖 13년 1789)

「吏讀方言」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憲宗)

「酷似我國吏讀」趙慶男의 亂中雜錄(宣祖 25년 1592)

「酷似我國吏讀」姜睡隱의 看羊錄(宣祖 31년 1598)

◦ 吏 朴

「又以俚語製吏札」尹廷珪의 東囊錄(哲宗 10년 1859)

「又俚語製吏札」東國輿地勝覽卷二一(成宗 12년 1481), 東國文獻備考(英祖 46년 1770)

◦ 吏 頭

「吏頭彙編」儒胥必知附錄

◦ 吏 文

「吏文大師」

「吏文條例」

◦ 吏 吐

「大抵 吏吐…又用教是等語」儒胥必知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의 명칭이 쓰이고 있었으니, 그후 이들을 범칭하여 학자들에 따라서는 吏套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찌하여 명칭이 이토록 다양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상론한 논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여 여기에서 그 대강을 시도하여 살펴 보면 中宗때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의 간행에 대하여 中宗 36년(1541) 11월 25일에 기록된 權應昌의 啓文을 보면

「令醫司 藥理文字 通解醫員等 擇定 上頂諸畜染疫治療方文乙 吏讀諺文爲等如 兩件解釋…」

에서 吏讀과 諺文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은 吏讀과 諺文을 대등하게 다루었으니, 이것은 곧 諺文文章이 儒胥必知에서 보이는 吏胥體文章²⁷⁾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鄭道傳이 太祖 3년(1394)에 편찬한 「朝鮮經國典」의 憲典總序에 「又慮愚民無知解禁 爰命攸司 將大明律 譯以方言 使衆易曉」라는 기록을 볼 수 있

27) 凡文字之體 各自不同 爲文章之學者 尙文章之體 爲功令之學者 習功令之體 爲吏胥之學者 吏得之體…〈新式儒胥必知 慎村子序〉

으니 「將大明律譯以方言」에 유의할 때 太祖 4년(1395)에 쓰여진 「大明律直解」金抵의 跋文에 「聖上思欲頒布中外 仕進輩 傳相誦習 皆得以取法 然 其使不常 人人未易曉 況我本朝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 土俗生知習熟 未能遽革 焉得家到戶諭 每人而教之哉 宜將是書 讀之以吏道 導之以良能…」라는 기록이 있는 바, 이는 鄭道傳이 「譯以方言」이라 한 것을 「讀之以吏道」로 바꾸어 표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太宗實錄 14년 12월 甲申條에 「至是 上 命崙等 改正明律譯解誤處…」라는 기록에서 「譯解」는 方言 즉 「吏道」로 譯解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또한 시대적으로 뒤늦긴 하지만 19代 明宗과 魚叔權의 「稗官雜記」卷之四에 의하면 「以薛聰所製吏讀 逐條翻譯 名曰直解大明律」이라 하였으니 이는 吏讀로 大明律을 번역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다.

또 高麗 25代 忠烈王 13년(1287)에 간행된 李承休의 「帝王韻記」에 「弘儒薛候製吏書 俗言鄉語通科隸」에서 吏書로 俗言과 鄉言을 科隸(漢文)와 通하게 하였다는 것은 吏書를 단지 국어의 형태요소 표기에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 吏讀를 품사별로 나누어 볼 때 비록 한 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는 않지만 名詞, 代名詞, 動詞, 存在詞, 指定詞, 冠形詞, 副詞, 助語, 助用語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²⁸⁾

또 「東國輿地勝覽」의 「以方言解九經義 訓導後生 又以俚語製吏札 行於官府」에서 「吏札」이란 말이 文章이란 뜻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²⁹⁾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른바 吏讀는 漢字의 전래 초기에는 崔鉉培, 梁柱東, 高晶玉, 金亨奎, 康允鎬, 徐炳國, 金根株 등의 국내학자와 岡倉由三郎, 金澤庄三郎, 小創進平 등의 日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문장의 특수부분 또는 접미사표기의 명칭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점차 吏讀式表記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말 구문대로 차자표기한 吏胥體文章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³⁰⁾ 조선조 중기 이후로는 다시 문장의 특수부분의 어사

28) 金根株, 「吏讀研究」(亞細亞研究通卷 第7號, 1961. p. 113~9)

29) 〈慶尙道地理志〉慶州條에 「自幼喜讀書貫通六經作俚文傳於世」라 하였으니, 이 또한 「吏札」를 「俚文」이란 말로 대신하여 썼다고 하겠다.

30) 이점에 대해서는 文時赫은 「吏讀에 對한 考察」(正音創刊號, p. 17)에서 吏讀은 漢字로 表現되었으나 순 한글이 아니요, 漢字로 표시된 朝鮮글이다. 그리고 吏讀은 漢文사이에 達接詞 또는 助詞등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正音以前에는 의사표

탄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지되어 마침내 吏吐란 명칭까지 낳게 되어 잡다한 명칭이 섞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이렇듯이 명칭이 많아진 것은 첫째 표기자의 借字表記運用의 측면에서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과 둘째 借字로 인한 同音異字의 표기로 인하여 명칭이 여러가지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4. 鄉札式表記

鄉札이란 명칭이 문헌에 보이는 것으로는 高麗 11代 文宗 29년(1075)에 간행된 均如傳의 崔行歸 譯歌序가 처음이니 즉 大華嚴首座圓通雨重大師均如傳 譯歌功德分에 수록된

「所恨者 我邦之才子名公 解吟唐什 彼土之鴻儒碩德 莫解鄉謠 矧復 唐文如帝經交 羅 我邦易讀 鄉札 似梵書連布 彼土難誦」

이라 하였으니, 이 서문은 均如大師와 같은 시대의 사람 翰林學士 崔行歸가 大師의 普賢十願歌를 보고 감탄하여 이를 漢詩로 번역하면서 쓴 것이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均如大師는 물론 이를 번역한 崔行歸도 鄉札式表記에 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이 均如傳에 나오는 鄉札이란 名稱이 新羅時代에 汎稱된 名稱이었는가 하는 點에 對해서는 다른 文獻의 記錄이 없어 斷定할 수는 없으나, 唐樂에 對한 鄉樂, 唐言에 對한 鄉言, 唐辭에 對한 鄉語, 唐什에 對한 鄉謠, 唐人에 對한 鄉人, 鄉士 등의 문헌적인 기록으로 미루어 均如傳의 鄉札이란 명칭은 당시로는 지극히 자연스런 命名이라 하겠다³¹⁾」뿐만 아니라 위 均如傳의 譯歌序文이 雙貫文으로 鄉札은 唐文의 對句表現이란 점에서도 鄉札은 唐文에 상대하여 쓴 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鄉札式表記탄 위 崔行歸의 譯歌序文에 「鄉札 似梵書連布 彼土難誦」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普賢十願歌 十一首를表記한 文章(鄉札)이 中國人에게는 難解함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鄉札」은 梵書와 비슷하게 連布되

시의 전부 즉 朝鮮語로 말할말 전부 환언하면 體言, 用言, 助詞등을 다 吏讀로 쓰기도 하였으니 正音을 쓰기 전에 행세하든 國文이라 말하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姜鎰燮은 「吏讀新研究」(忠南大, 1963. p. 17)에서 吏讀은 우리말의 構文에 借字表記한 吏胥體文章의 名稱이라 把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31) 朴炳采, 「鄉札과 吏讀의 概念定立에 對하여」(語文論集第1輯, 高大國語國文學會, 1966. p. 25)

어 지므로 孤立語辭가 交互羅列함으로써 構成되는 漢文文章(唐文)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의 著名한 學者라도 解讀理解하지 못한다 했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 말은 中國語와 語法, 系統이 달라 梵文의 連布됨과 類似하게 連續添加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記錄을 미루어 볼 때 「鄉札」은 連續添加되는 우리나라 言語를 그대로 表記한 文章³³⁾이라 하였으니, 이두식 표기가 구조적으로 한국어의 구문법에 따랐다는 점에서 국어의식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한자어휘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한국어적 표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거의 완전한 한국어적 표현 방식이 되게 한 것이 향찰식표기라 이해된다. 즉 崔³⁴⁾님도 「漢字를 利用하여 自國語를 表記하려는 努力은 이미 固有名詞表記에서 얻은 經驗과 吏讀表記의 土台위에서 可能했던 것이요, 國語의 構文과 微細한 形態素의 表記에 이르기까지 完全한 境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하고 이어서 「吏讀가 文語의인 本質을 지닌 表記方式임에 비하여 鄉札은 강한 口語의인 本質을 지니고 있다」고도하였다.

鄉札式表記란 결국 吏讀式表記라는 우리말의 부분적인 借字式表記方式을 한이상, 의미부인 자립형태소에 까지 확대시켜 우리말을 전면적으로 표기하고자 한 것이니, 이러한 시도는 文字借用表記의 변천과정의 자연스런 추세라 하겠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借字하여 자국어를 표현한 차자표기 변천적인 입장에 보면 극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국어의식 또한 이 단계에서 최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하여 수많은 노래를 지어 이의 사용을 실험하였으나 끝내 만족치 못한 한편, 문화발달에 있어 상위지향적 의식구조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문의 참 모습대로 복귀하려는 성향 때문에 鄉札式表記는 자취를 감추었으니 이는 한편 차용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동시에 한문자재에 대한 이해 능력도 漢字 漢文의 수입시기적으로 보아 폭넓게 퍼져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문자생활의 이원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한문 일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니 자연 한문의 학습이 가일층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또한 어느정도 보편화되면서 한문의 학습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른바 口訣式表記 방법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姜銓鑒, 「吏讀의 新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 1963. p. 18

34) 崔範勲, op. cit., p. 140

5. 口訣式表記

「增補文獻備考」卷二四三 朴世采 筵奏에 「韻會 有文斷而意不斷 爲讀 文義俱斷 爲句之說 以叱推之 雖我國口訣 必當懸於中國 句讀之下 然後方爲合義矣」

라 하였으니 이는 漢文을 읽을 때 句讀아래에 우리말(口訣)을 달아 文義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 하겠다.

주

「天地之間 萬物之衆庶 唯人伊 最貴爲尼 所貴乎人者 應 以其有五倫也羅」(董蒙 先習)

또한 「楞嚴經諺解」에 있는 金守溫의 跋文에 보면

「恭惟我主上殿下…萬機之暇 特徹乙覽 親加口訣 正其句讀 命工曹參判臣韓繼禧及 臣守溫 悉以國語依文而譯…」

이 역시 「原典의 漢文에 句讀點이 찍힐 자리에 한글로 表記한 國語의 機能語를 가리키고 있음이 확인된다」³⁶⁾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口訣이란 漢文을 읽을 때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句讀에 사용된 우리말의 語辭를 지칭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73년 12월 忠南 瑞山郡 雲山面 文殊寺의 金銅如來座像의 腹藏品 가운데서 舊譯仁王經上이 발견됨에 따라 口訣에 대한 概念을 확대하여 「音韻의 補助機能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釋讀의 補助機能을 가진 것 까지를 아울러 口訣이라고 생각하여야 할것」³⁷⁾이라고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釋讀에 쓰인 口訣이 他人의 理解를 위한 表記라기 보다는 表記者 自身の 學習을 위하여 表記하였다는 一回의 斷片的인 것이나, 傳統的 普遍的인 것이냐를 考究해 보아야 할것」³⁸⁾이라고 하여 매우 조심성있게 다루고 있어 역시 자료가 좀더 나온 뒤에야 확실한 것을 알 수야 있겠지만 불가나 유가 등에서 경서를 학습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라 생각되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口訣의 同義語로 吐한 말이 쓰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안년³⁹⁾

36) 安秉禧, 「口訣와 漢文訓讀에 대하여」(震檀學報 41. 1976. p. 146)

37) 南豐鉉, 沈在箕, op. cit., p. 10

38) Ibid., p. 17

39) 安秉禧, op. cit., p. 151~2

의 견해를 들어 보면

「上語十秀良曰 昔太宗命權近著五經吐(凡讀書 以諺語句節讀者 俗謂之吐)近讓之不得 遂著詩書易吐 唯禮記四書無之(世宗實錄10年閏 4月 乙亥)」

權近在太宗의 命을 받고 마지 못하여 詩經, 書傳, 周易의 吐를 지었다는 內容이다.

그러나 우리의 注意를 끄는 것은 이보다도 吐에 대한 實錄編纂者의 夾註(위에서는 ()안에 引用)다. 漢文을 읽을 때 國語로써 句節을 밝히는 것을 俗에서 吐라 한다는 그 夾註는 吐가 바로 口訣임을 말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夾註가 아니라도 口訣과 吐가 同意語란 事實은 위의 陽村權近의 吐를 成宗때의 成俔이 口訣이라 한 다음 글이 알려 주고 있다.

「至我朝 陽村梅軒兄才能明經學 又能於文 陽村定四書 五經口訣」(慵齋叢話卷I)

이와 같이 吐와 口訣이 同意語로 쓰인 事實은 柳希春의 日記를 檢討하면 더욱 뚜렷해진다. 柳希春은 經筵에서 보인 博學으로 宣祖 7年(1574) 四書五經의 口訣과 諺解에 着手하라는 宣祖의 命을 받는다. 그 王命의 記錄에 口訣과 吐가 同意語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上曰…今四書五經口訣諺解 紛縛不安 鄉之學問精博 世所罕有 四書五經口訣及釋鄉皆詳定(甲戌 10月 10日)

盧公曰 聞上付公以 四書五經吐釋之定 有諸 希春對曰有之(甲戌 10月 13日)

臣希春…又啓曰臣頃受四書諸經吐釋詳定之命(甲戌 12月 1日)

四書五經의 口訣과 諺解란 같은 事業을 口訣과 釋, 吐와 釋이라 적고 있다. 口訣과 吐가 同意語라야만 可能한 記述인 것이다. 같은 日記(甲戌 11月 8日)에서 洪範의 一節인 「欲中人以上 皆可能也」의 上아래 口訣을 進講할 때 잘못 「是」(이)라 하였으나 「乙」(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記事가 보인다. 이 경우도 吐와 口訣을 같은 뜻으로 함께 쓰고 있다. 이것은 비단 柳希春에 局限되지 않는다. 李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口訣이라 한 것을 吐라고 쓰고 있다. 즉 中庸吐釋이란 책의 吐가 바로 그것이다. 또 이 책과 같이 書名에 쓰인 吐도 口訣임을 말하는 例가 더 있다. 壬辰亂以前の 攷事撮要에 의하면 諺吐小學, 懸吐小學의 冊板이 있으니 이 書名의 吐 역시 口訣과 같은 뜻으로 썼다」이상이 安님의 견해다. 그러나 과연 口訣과 吐가 정

확히 똑같은 것인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口訣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궁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Ⅳ. 마 무 리

漢字漢文의 수입 이후 우리의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漢字借用表記에 있어 종래는 鄉札體, 吏讀體, 口訣體로 변천하였다는 주장과 吏讀體, 鄉札體라 든가 아니면 誓記體, 吏讀體, 鄉札體등으로 변천했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들은 한결 같이 鄉札과 吏讀를 동일 목적으로서 쓰인 것으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鄉札體는 漢文體에 대립하여 쓰인 것이라하여 鄉札과 吏讀, 口訣은 같은 시대에 발생하였으며 단지 쓰임의 목적의식만을 달리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가 借用表記體 그 자체만을 두고 보았음이니 방법을 달리하여 왜 이러한 여러 종류의 표기변천을 겪어야만 했느냐하는 관점에서 보면 즉 국어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설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그 하나 하나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한다.

참 고 문 헌

- 1) 權憲奎, 「朝鮮語文經緯」, 廣文社, 1923
- 2) 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朝鮮紀念圖書出版館, 1938
- 3) 權相老, 「朝鮮文學史」, 1947
- 4) 李 鐸, 「國語學論攷」, 正音社, 1958
- 5) 俞昌均,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I」, 啓大出版部, 1980
- 6) 文時祿, 「吏讀에 對한 考察」, 正音, 1934
- 7) 李崇寧,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關한 試論」, 서울大論文集2輯, 1955
- 8) 李丙燾, 「壬申誓記石에 對하여」, 서울大論文集5輯, 1957
- 9) 金根洙, 「吏讀研究」, 亞細亞研究通卷7號, 1961
- 10) 姜鎰燮, 「吏讀新研究」, 忠南大學院, 1963
- 11) 朴炳采, 「鄉札과 吏讀의 概念定立에 對하여」, 高麗語文論集輯, 1966
- 12) 南豐鉉, 沈在箕,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共一)」, 檀國大東洋學6輯, 1976
- 13) 安秉禧, 「口訣과 漢文訓讀에 對하여」, 震檀學報, 41. 1976
- 14) 南豐鉉, 「漢字借用表記體의 發達」, 民衆書館國語學論文選, 1977
- 15) 崔範勲, 「漢字借用表記方式의 段階的 發展에 對하여」, 淸州女大論文集7輯 1978
- 16) 盧道陽, 「韓國文化의 地理的 背景」, 韓國文化史大系 I, 1979